난치병 환아에 희망을…자선음악회로 치료비 모금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0.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총무 혜룡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축령사 주지 설봉 스님, 미륵암 주지 혜각 스님, 석천암 주지 법광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정현숙 마하무용단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박홍근 국회의원, 최윤찬 중랑구의회 부의장, 조성연·주덕성 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생명나눔 회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부터 매년 동국대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2019년에는 10년을 기념하며 자선음악회 형태로 확대했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자선음악회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이식대기 환자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를 모금하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난치병 환자 3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는 '제4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대상은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에 돌아갔다.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한마음선원은 2014년부터 매월 정기 및 일시 기부를 통해 누적 1억원 이상 난치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캄보디아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미생물(EM)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과 물품을 지원했고, 국내외 재난 발생 때마다 신속히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무료 급식,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명용 제4회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장은 "한마음선원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온 귀감이 되는 단체"라며 "생명나눔운동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확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과분한 상이지만 한마음선원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함께 움직여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들이 이롭게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생명나눔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큰스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받은 대상 상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다시 후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특별공로상은 마하무용단에 돌아갔다. 2017년 창단 후 매년 지역 복지관, 어르신 효잔치 무료 공연,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 장기기증자를 위한 살풀이 공연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선음악회를 기획해 티켓 수익금을 난치병 환자를 위해 기부하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홍보상은 황재훈 BBS불교방송 라디오국 PD, 생명상은 의대생 자살예방 동아리 따숨(따뜻한 숨결)에게 돌아갔다. 나눔상은 조한순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속 자원봉사자가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노래를 통해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는 가수 신현희가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문화공연이 시작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영수,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소리꾼 이장학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공연뿐 아니라 '제4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대상은 한마음선원에 돌아갔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의 귀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마하무용단의 춤사위는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소리꾼 이장학이 특별 출연해 중랑구청 대강당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



활기 넘치는 태권도 시범공연은 동참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생명나눔, 11월 22일 자선음악회
'선율 위 나눔, 춤추는 마음' 주제
일면 스님 "귀한 가치 실천 시간"

제4회 생명나눔대상 한마음선원
혜수 스님, 1000만원 후원금 전달
마하무용단·장미화·엄영수 무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의 귀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오늘의 자리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를 주관한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함께해 준 모든 이들 덕분에 생명을 살리는 기적, 행복을 나누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자선음악회 수익금이 난치병 어린이와 이식대기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식등록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걷기명상&플로깅,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산사문화예술제, 자선음악회,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통해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는 12월 2일 오전 9시 서울 중랑구청에서 열린다. 02-734-8050

"대행 큰스님 가르침 실천하겠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오른쪽)과 일면 스님의 기념촬영 모습.

제4회 생명나눔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한마음선원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선원 창립 이념 아래 다양한 나눔·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쌀뜨물을 친환경 유용 미생물(EM)로 발효시켜 하천 정화에 활용하는 '지구사랑 작은실천' 운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80여개 기관과 학교, 복지시설에 EM 발효기기와 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환경운동은 '자연도 생명'이라는 생명나눔의 철학을 사회 전반에 전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혜수 스님은 "일면 스님은 항상 한마음선원이 걸어가는 길을 격려해 주셨다"면서 "우리가 생명나눔에 공헌하거나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대상 수상이 과한 것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선원 대중이 대행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변함없이 화합하며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에 모두가 함께 받은 값진 상"이라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잘 걸어가라는 의미가 담긴 상인만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정 객원기자

